

# 일감 쏟아지는 조선업계 '안전보건경영' 노 젓는다

건조물량 늘며 안전관리 역량 집중

**HD현대중** 자회사 안전조직 개편  
**삼성중** 화재 등 비상상황 대응 훈련  
**한화오션** 자동화 스마트 야드 구축

국내 조선업계의 건조 물량 확대에 따라 안전사고에 증가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어 작업 시 안전관리가 업계의 주요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의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은 3.68%로 집계됐다. 이는 제조업 평균 1.27%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조선업계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ESG 경영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안전 보건경영을 전제 중이다. 조선업계는 안전보건 경영을 위한 부서를 별도로 구성해 스마트 관제 시스템, 안전위험 경보제도 실시, LNG 실증설비 비상

상황 대응 계획 수립 등 기술 측면의 안전 점검과 교육을 통해 안전 문화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조선소는 업무 공간의 특성상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높은 곳이나 복잡한 배관이나 기계 설비 사이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조선소에는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발생한다. 추락, 충돌, 넘어짐, 화재와 폭발을 비롯해 무리한 동작과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의 위험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각사마다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현장 안전 점검 활동을 펼친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선박 건조 도크와 건조 중인 선박 내부 등 야드 곳곳을 돌며 직접 중대재해 위험 요소를 살피고 불안정한 작업에 대한 개선을 지시하는 등 안전 관리에 집중한다.

더불어 HD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한

HD현대중공업의 조선 자회사는 각사별로 안전 조직을 개편해 전문 담당 인원을 배치했다. 관리감독자, 안전지킴이, 안전요원 3중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설비 측면에서도 CCTV,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운영한다.

삼성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자율적 재해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노사위원회 구성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을 심의한다. 특히 LNG 실증설비가 늘어나면서 설비 시운전을 진행해 화재·폭발 인명사고 등 발생 가능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소방대, 비상 대응훈련을 시행 중이다.

한화오션의 경우에는 전 구성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HSE경영방침'을 실천한다. 이를 통해 한화오션은 자동화 기반의 스마트 야드를 구축해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폭스바겐 2023년형 ID.4

/폭스바겐코리아

## '440km' 고효율 질주... 편의기능 아쉬워

**자동차 시승기**

폭스바겐 'ID.4'

초기모델 대비 전비 10% 개선  
휠베이스 2765mm... 공간감 극대화

폭스바겐 ID.4가 쿠팡형인 ID.5와 함께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로 자리 잡았다. 올들어 9월까지 폭스바겐 전기차 판매량은 53만1500대, 이중 ID4와 ID5가 16만2100대나 채웠다. 2023년형 ID.4도 흥행에 한몫했다. 가격은 그 대로면서 주행거리를 전비를 10%나 늘리고 상품성도 개선했다. 국내에 수입되는 유럽 전기차 중에서는 보조금도 가장 많다. 1년여 만에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앉아 경기도 가평 일대 100km를 달려봤다.

새로운 ID.4는 전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준다. 지난해 출시됐던 초기 모델은 최대 주행거리가 405km에 불과했지만, 연식변경 모델은 구동 시스템과 배터리 개선으로 440km나 달릴 수 있게 됐다. 전비를 기준으로 하면 5.1km/kWh 수준인데, 실제로는 더 효율이 높다.

직관적인 회생 제동 시스템이 실전 비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 주행 모드가 에코와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노멀모

드에서는 내연기관차와 같이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는 따로 회생 제동을 걸지 않는다. 덕분에 내리막길을 포함해 가속이 필요 없는 구간에서는 변속기를 B모드로 바꾸면 된다. 반대로 스포츠모드에서는 가속페달을 떼자마자 회생제동이 시작되는데, 덕분에 전기차 특유의 긴 제동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주행성능은 초기 모델 그대로다. 최고출력이 204마력, 최대토크도 31.6kg·m에 달하지만 폭발적인 가속력 대신 부드럽게 속도를 올리며 안정적으로 달려준다. ID.4가 스포츠 모델이 아닌 만큼 전비를 위한 세팅이라는 설명이다.

내부 공간감도 극대화한다. ID.4는 겉으로 보기에는 골프보다도 작은 소형차 느낌이지만, 실제 휠베이스는 2765mm로 준중형 수준이다. 2열 레그룸도 예상보다 훨씬 널찍하고, 2열을 점으면 1500L 이상 실을 수 있는 적재공간도 확보했다.

보급형 전기차인 만큼 아쉬운 부분도 없지는 않다. 브레이크를 깊이 밟아야 제동력이 제대로 작동하는 등 답력에 이질감이 다소 느껴졌고 아직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지 않는 점도 분명한 단점이다.

/김재용 기자 juk@

## 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안 도출

기본임금 10만원 인상 등 전년도 상회  
최종 타결시 전후방 산업 긍정적 영향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의 긴장감이 고조됐던 포스코 노사가 31일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며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다.

31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회의에서 회사측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여기로 했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

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급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구성 등이며, 이번 잠정합의안은 전년도 수준을 상회한다.

앞서 포스코노사는 지난 5월 24일 상견례 후 10월 5일까지 총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의 이견이 커 교섭이 결렬됐다. 이후 노조는 결렬 선언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지난 28일부터 양일간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 가결한 바 있다. 만약 중노위에서 협상이 결렬돼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온다면 포스코노조는 쟁의권을 획득해 1968년 창사 이후 55년 만에 첫 파업

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향후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임단협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경우 안정적인 철강재 공급을 통해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후방 산업과 산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운 기자 ysw@

## HD현대오일뱅크, 年 12만t 규모 바이오원료 추가 확보

코린도그룹 등 구매계약 체결

HD현대오일뱅크가 친환경 바이오원료 구매계약을 잇달아 체결해 바이오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코린도그룹, LX인터내셔널과 각각 연간 4만톤, 총 8만톤 가량의 PFAD(Palm Fatty Acid Distillates, 팜잔사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PFAD는 팜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산도가 높아 전 세계 소수의 바이오디젤 공장에서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말 연산 13만톤 규모의 바이오디젤 공장 상업가동을 앞둔 HD현대오일뱅크는 이번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바이오원료 공급망을 확보했다. HD현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왼쪽)와 승범수 코린도그룹 의장이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 사옥에서 열린 PFAD 공급 계약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오일뱅크는 PFAD 외에도 사용하고 버려지는 식용유를 재활용해 바이오디젤 공장의 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HD현대오일뱅크와 코린도그룹은 바이오원료 공급뿐 아니라 목재 가공

부산물인 우드펠릿 등의 바이오매스를 활용하고 산림 조성 사업을 통한 탄소저감 방안에도 협력한다.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사장은 "양사의 사업 분야가 다른 만큼 다양한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며 "적극적으로 공동사업 기회를 모색해 가자"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LX인터내셔널과도 PFAD구매계약을 체결했다. LX인터내셔널은 지난 2009년 인도네시아 팜 농장 사업에 진출해 팜 사업을 회사 신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성장시켰다.

/차현정 기자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현대로템, ESG 종합평가 'A' 등급 획득

현대로템이 3년 연속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종합평가 A등급을 획득했다.

현대로템은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3년 상장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통합 A(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로템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ESG 종합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했다.

현대로템은 올해 사회 부문에서 A+(매우 우수) 등급을 부여받았고, 환경과 지배구조 부문에서도 각각 A 등급을 따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순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개선 노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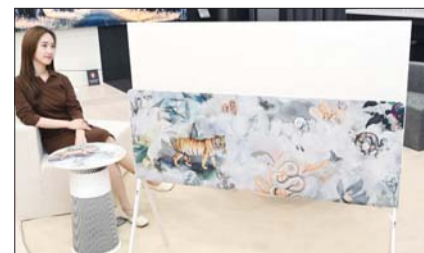
/양성운 기자 ysw@

## LG전자, '모오이' 오브제컬렉션 2종 선보

LG전자가 31일 네덜란드 디자인가 구 브랜드 '모오이'와 협력한 오브제컬렉션 2종을 출시하고 200대 한정 판매한다.

모오이(Moooi)는 토끼 형태의 램프, 실제 크기로 갓을 쓴 말 등 마치 예술작품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의 제품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다.

LG전자는 라이프스타일 올레드 TV 포제, 테이블형 공기청정기 에어로



'LG 오브제컬렉션' 모오이 에디션 /LG전자

퍼니처 등 2종에 모오이의 디자인 정체성을 녹인 에디션을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김서현 기자 seoh@